



수원 봉녕사는 윤 칠월 칠석을 맞아 8월 30일 500여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인총림 복장전문위원 경암 스님을 복장단주로 대적광전 부처님 세분의 전통복장의식을 재현했다.

‘전통 복복장 의식’ 공개하던 날

이래저래 복장 터질 일이 많은 세상. 갖가지 성물(聖物)로 부처님 복장(腹藏)을 채우며 ‘복장 편한 세상’을 염원해 보는 마음은 경건하기만 하다.

음력 윤 칠월 칠석(8월 30일), 수원 봉녕사(사주지 묘입)에서는 해인총림 복장전문위원 경암 스님의 집전으로 한국불교 전통복복장 의식을 재현하는 의미있는 진치가 열렸다. 이날 경암 스님은 복장의식의 핵심인 후령통(부처님의 다섯 장기를 상징하는 성물을 담은 병)을 조성하는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부대중 앞에서 재현했다. 특히 재가신도들은 밀법(密法)으로만 은밀히 전해져 오던 복장의식 재현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희심에 휩싸였다.

법당안 3m 높이의 대형 부처님은 벌써부터 복장을 기다린다는 듯 볼 두루 동쪽으로 놓고, 천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누워 있다. 가로 40cm, 세로 30cm 크기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 공간을 활짝 열어놓은 채, 봉녕사 대적광전 삼존불은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 오른쪽에 노사나

**3m 높이 세 부처님 동쪽 향해 눕혀
 오장 상징 오곡 등 65가지 성물 담아
 5시간 반 동안 전과정 완벽 재현**

부처님, 왼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순서대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복장의식 재현은 오전 10시, 500여 사부대중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도량을 정화하는 의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복장단주(腹藏壇主)를 맡은 경암 스님 뒤로, 증명법사 정호 스님(화상 용주사 주지), 영산 스님(용주사 선덕), 묘입 스님 등이 어간문을 통해 법당안으로 들어섰다. 5방법사와 송주법사를 맡은 법산 도관 보현 영명 해만 정각 스님 등 젊은 율사들도 뒤따라 입장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500여 신도들이 질서정연하게 법당에 입장하자, 경암 스님은 들어서시는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배수물을 뿌려주며 법당을 정화하는 결계의를 시작했다. 황색탁자(중앙), 청색탁자(동방), 백색탁자(서방), 홍색탁자(남방), 흑색탁자(북방)에 5방법사가 각자 위치에 서자, 곧 증명 3회상(지공·나용·무학 스님)을 청하는 예불이 이어지고, 복장법사 옆으로 송주법사가 자리 잡았다. 가운데 가장 넓은 황색탁자에 앉은 아사리(경암 스님)의 ‘흙’하는 부름에 따라 동서남북의 법사들 역시 ‘흙’으로 답하며 후령통에 담은 성물을 차곡차곡 쌓았다. 각 방향의 법사들은 아사리의 주문에 따라 오곡대떡 직 도 녹두 마자, 오보(금 진주 은 유리 호박), 오악인신 감초 주심 아리 부자, 오향청



노사나 부처님이 복장을 기다리며 천정을 향해 잠시 누웠다.

**복장 터질 일
 없는 세상 위해
 부처님 복장
 가득 채웠네**

목향 정향 광향 침향 유향 등 무려 65가지 성물을 차례로 놓기 시작했다. 이어 법사들이 ‘백산개진인(을 삼바다타이다 제다라 보야명가 삼모 나라 빠라나 삼마에 흠)’까지 각 순서에 맞는 진언 108편을 송하는 사이, 신도들은 정성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주력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하며 장엄스런 분위기로 이끌었다.

본격적인 복장 의식이 시작되자 대중스님들이 일제히 일어나 두르고 있던 가사를 벗어 복장단을 가리기 시작했다. 부처님 뱃속으로 들어갈 일종의 ‘장치(臟器)’를 신도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라니를 외던 신도들이 급작스런 스님들의 행동에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경암 스님은 오색실로 한데 묶은 성물을 다시 오색비단에 감싸 싸기 시작했다. 이어 후령통 안에 팍 차도록 비단을 감아 성물을 넣고 다시 부처님 진신 사리와 수정구 등을 채운다음 비로소 뚜껑을 닫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경암 스님은 정성을 다해 금색 보자기에 후령통을 2번을 더 싸고, 풀칠로 마지막 봉인을 하는 것으로 이날 의식을 끝냈다. 드디어 목불에 생명을 불어 넣을 심장이 생긴 것이다.

경암 스님이 대중에게 후령통이 다 채워졌음을 알리자, 황색탁자위에는 부처님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후령통 3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도들은 환희심에 솟구쳐 박수를 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쉬지 않고 의식을 이끈 법사스님들과 대중스님들, 그리고 미동도 않고 꼬박 5시간 30분 동안 다라니를 외 500여 신도들의 공덕도 그대로 부처님의 복장에 옷감이 담겨지는 순간이었다.

봉녕사 주지겸 승가대학장 묘입 스님은 지난 2001년 6월 대적광전 불사를 마치고 불복식까지 마쳤지만 늘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고 한다. 유서깊은 봉녕사의 역사적 전통을 생각한다면 큰법당 부처님을 성대히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복장에 대해 아는 이가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날 어렵게 치러진 복장의식을 끝까지 지켜본 묘입 스님은 “이제 내 복장이 다 후련하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대중 스님들 또한 오늘의 환희심을 떠올리며 수행 정진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최근 <조상경(造像經·불상을 모시는 방법을 기록한 책)>에 대한 연구논문을 책으로 발표한 태경 스님(동국대 박사과정)도 이날 의식을 지켜보며 “오늘같이 화려하면서 격식을 모두 갖춘 복장의식은 조선시대 왕실의 지원을 받은 사찰에서만 가능했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스님은 “경암 스님이 통 복장의식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 낸 것은 한국불교사에도 길이 남을 의미있는 불사”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수원/글 = 조은숙 기자 · 사진 = 박재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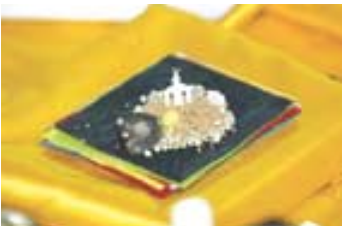
불복장 봉안 순서



세분 부처님의 복장안에 들어갈 65가지 성물이 가지런히 놓였다.



복장물을 청결히 하는 결계의 의미로 쇄수를 뿌린다.



성물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다.



오색천에 싸인 성물을 한데 묶고 있다.



오색실은 부처님의 법력에 중생에게 전해져 오게 하는 의미로 성물을 완전히 감싼다.



방위가 틀어지지 않도록 비단을 꼭 채워 성물을 넣는다.



완성된 후령통이 봉인을 마치고 복장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모습.



성물을 후령통에 집어 넣는 순서가 되자 스님들이 일제히 가사를 벗어 복장단을 가린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험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건강의 氣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 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부터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 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침전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靑壯靑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이렛배가 냉하신 분
-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영양증진 분에게 적극 권장
-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C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성종양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식 온열복대는 80°C의 고열이 발생 원칙외선인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C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애영 ◆ 일일공익활동 상담 합니다.